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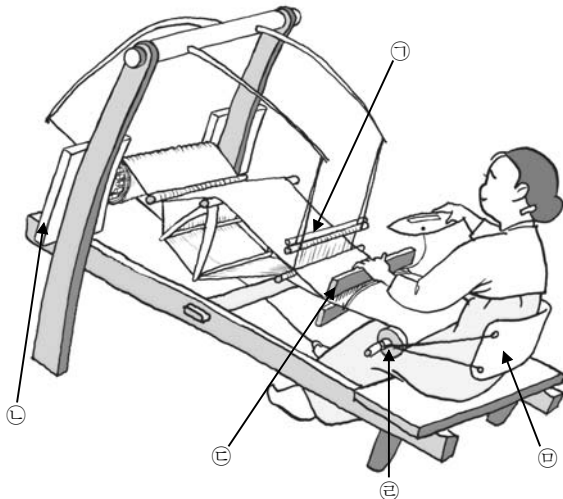
2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수업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물음) 대화 내용으로 보아 남자의 마지막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배운 내용은 바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 ②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 ③ 신체 리듬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 ④ 배운 내용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 ⑤ 다양한 암기 방법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3. (물음)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 ①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 ②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 ③ 아무리 힘들더라도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 ④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⑤ 상황에 따라 대처할 줄 아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4. (물음) 뉴스 제작을 위해 메모된 내용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취재 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

<취재 대상>
출산 장려금 신청자, 전문가, 일반 시민①

<취재 내용>
-최근의 출산 희망 조사 결과②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③
-저출산을 극복한 외국 사례④
-정부의 저출산 대책⑤

- [5 ~ 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두 교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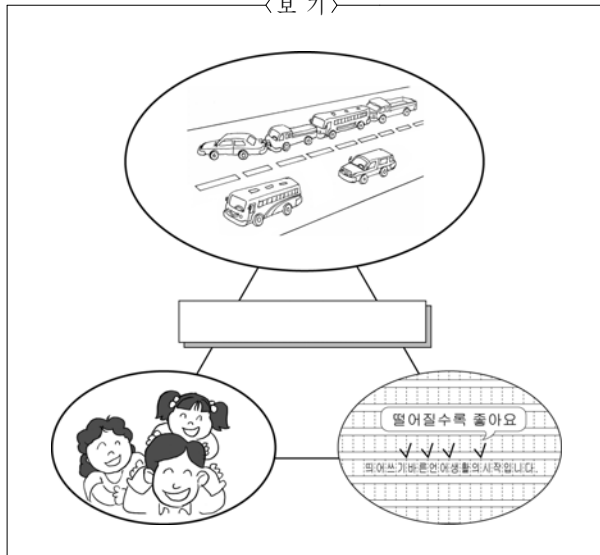
- ① 과학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 ② 강력 범죄에만 사용해야 한다.
- ③ 개인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

6. (물음) 두 토론자의 차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교수는 직설적으로, 여교수는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② 남교수는 논리적으로, 여교수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③ 남교수는 통계 자료에, 여교수는 전문가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 ④ 남교수는 원인을, 여교수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⑤ 남교수는 현실적 필요성을, 여교수는 도입 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를 모두 활용하여 ‘바람직한 교통 문화’에 관한 공익 광고를 만들고자 한다. 광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여유 있는 안전 운전, 시간이 절약됩니다.
 ② 당신의 갓길 주행, 구급차가 멈춰 섭니다.
 ③ 과도한 앞지르기, 가족의 아픔도 끼어듭니다.
 ④ 무리한 차선 위반,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⑤ 안전 거리 확보, 가족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8. ‘표절’에 관한 글쓰기 계획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제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표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태 분석	→	○ 수행 평가 과제물 대부분이 무단 복제임 ○ 과제 작성 시 인터넷 의존도 높음	...①
문제 발견	→	○ 노력 없이 결과만 추구하는 현상 ○ 남의 글을 도용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 부족	...②
전개 방향	→	○ ‘실태 파악을 통한 문제 제기’ →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의 순서로 논지 전개	
원인 분석	→	○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려는 결과 지향주의 ○ 저작권에 대한 보호 의식 부족	...③
해결 방안	→	○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 세계화 시대의 적응 노력 강화하기	...④
활용 자료	→	○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법률 ○ 자기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 사례	...⑤

9. <보기>와 같이 ‘의료 서비스 수출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두	
－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증가	㉠
－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
II. 본문	
1. 실태 분석 및 진단	
－ 지속적인 유치의 어려움	
－ 의료 수출국으로의 전환 기회	
2. 외국인 환자 유치 장애의 요인	
－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 환자 유치, 광고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
－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3. 의료 서비스 수출 전략 방안	
－ 비자 발급 간소화	㉣
－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 규제 완화	
－ []	㉤
III. 결말	
－ 의료 수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촉구	

- ① ㉠: 국내 병원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의 연도별 현황 자료를 제시한다.
 ② ㉡: 진료비 수준에 비해 국내의 높은 의료 수준을 선진국과 대비하여 제시한다.
 ③ ㉢: 언어 장벽이나 까다로운 국내 병원 이용 절차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례를 활용한다.
 ④ ㉣: ‘II-2’를 고려하여 ‘국내 의료기관 종합 사이트 구축 및 운영’으로 수정한다.
 ⑤ ㉤: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의료 기관 선정, 인증제를 통한 지원’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10. <보기>의 자료를 보고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 기 >

실용화되어서는 안 되는 환경

天 조류 살 수 없음

地 식물 살 수 없음

水 어류 살 수 없음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 조건 >

○ 자료에서 제시하는 주제 의식을 반영한다.
 ○ 대구와 비유의 기법을 모두 사용한다.

- ①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 사람과 자연은 한 집에 사는 형제입니다.
- ② 파괴는 한 순간 회복은 수십 년. 쓰레기 분리 수거, 말보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 ③ 사람이 먹지 못하는 물은 물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맑은 물은 물고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 ④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 ⑤ 우리가 파괴하는 자연이 언젠가 인간 파괴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갈 요람입니다.

11.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한다. <보기>의 제작 회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제작 목적에 맞는 제목을 붙인다.
-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이 세계 속의 언어'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다.
- 1부와 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임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한다.
-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한다.

영상물 제작 계획서		
제목	• 홍보 특집 -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의 우수성'	...①
홍보 대상	• 한국인과 한글을 알고자 하는 외국인	
제작 의도	•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언어'임을 알려 한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다.	...②
진 체 구 성	중심 열개 • 1부에서는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 2부에서는 한글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인 표음 문자임'을 보여준다.	...③
	보조 열개 • 국내의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결과를 중간중간 소개한다.	...④
전달 방식	• 내레이션을 통해 한글이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언어라는 것을 소개한다. •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여 보여준다.	...⑤

12.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달력을 보면 가족의 생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우리가 기억하고 챙겨야 할 날들이 많다. ㉠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이런 날이 되면 선물을 사고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평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 깨달아지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 날 하루만 무슨 날이라고 요란스럽게 그러지 말고 평소에 좀 잘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 그리고 이런 기념일들은 꼭 필요하다. 사실 기념일은 그 날만 잘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날 하루만이라도 그 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기념일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번거롭다는 ㉣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평소에 무심했던 행동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 따라서 앞으로 기념일을 더 확대해야 한다.

- ① ㉠: '평소에는' 다음에 '고마움을'이라는 목적어를 넣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어.
- ②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쓰였으므로 '깨닫게'로 고쳐야겠어.
- ③ ㉢: 앞 문장과 연결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꿔야겠어.
- ④ ㉣: 문맥을 고려하여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로 고쳐야겠어.
- ⑤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13. <보기 1>은 '터지다'가 사용된 문장을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보기 2>의 'A와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ㄱ. 홍시가 터지다. 제방이 터지다.
 ㄴ. 입술이 터지다. 가뭄으로 논바닥이 터졌다.
 ㄷ. 비명이 터지다. 박수가 터지다.
 ㄹ. 전쟁이 터지다. 혁명이 터지다.

<보기 2>

- A. 추위에 언 뺨이 갈래갈래 터져 실핏줄이 내비쳤다.
 B. 황제의 그 말처럼 오래잖아 놀라운 일이 터졌다.

- ① A → ㄱ, B → ㄴ ② A → ㄴ, B → ㄷ
 ③ A → ㄷ, B → ㄴ ④ A → ㄹ, B → ㄷ
 ⑤ A → ㄷ, B → ㄹ

14. 어휘의 선택이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그의 제안에 (동감)고감)하는 사람은 손을 들었다.
- ② 공포 영화를 보면 전율과 (쇄감)쾌락)을 맛볼 수 있다.
- ③ 그는 평생 무어라고 (표현)표기)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
- ④ 그녀는 그때 (간단)간결)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를 따라 나섰다.
- ⑤ 그것은 마음 속에서 깊이깊이 내솟는 (청결)고결)한 눈물이었다.

[15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나) 산은 항상 말이 없고
 강은 골짜기에 갈수록 소리내어 흐른다.
 이 두 다른 갈래가
 그러나 조화를 이루어
 얼굴이 다르지만 화목한 영위(營爲)로
 나가고 있음을 본다.
 세상이 생기고부터
 짜증도 안 내고 그런다.
 이 가을 햇빛 속에서
 단풍빛으로 물든 산은
 높이 솟아 이마가 한결 빛나고
 강물은 이리저리 몸을 뒤틀며
 반짝이는 노릇만으로
 그들의 존재를 없는 듯이 알리나니
 이 천편일률(千篇一律)로 똑같은
 챗바퀴 같은 되풀이의 日月 속에서
 그러나 언제나 새로움을 열고 있는
 이 비밀을 못 캔 채
 나는 드디어 나이 오십을 넘겼다.

— 박재삼, 「日月 속에서」 —

(다)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너머 큰 산 그 너댓산 안 보이어,
 내 마음 등등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 묵중히 엮드린 산,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래 넝쿨 바위 영서리에 얹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산, 산들! 누거 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이 흠뻑 지리함

직하매,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
 어 오를 ①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찌릿순 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15.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다)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 ~ (다)는 모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⑤ (가) ~ (다)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6. <보기>의 화자가 (가)의 ‘너’에게 들려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① 힘겨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 ② 큰 일보다는 작은 일을 추구하는 것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 ③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 ④ 신념을 불태우며 깨끗하게 사는 것도 행복한 삶입니다.
- ⑤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17. (나)와 (다)의 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둘 다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공간이다.
- ② 둘 다 세속적인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 ③ (나)의 ‘산’은 미래 지향적, (다)의 ‘산’은 현실 지향적인 삶의 공간이다.
- ④ (나)의 ‘산’은 고독감을, (다)의 ‘산’은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 ⑤ (나)의 ‘산’은 깨달음을, (다)의 ‘산’은 소망 실현의 기대를 주는 공간이다.

18. <보기>가 (나)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인은 산과 강의 모습을 통해서 ‘조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 산과 강이 상반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존재가 반드시 비슷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산은 강물을 끼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강도 산을 배경으로 삼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 ㉢ 그렇지만 산과 강이 어우러질 때 산은 더 우뚝 솟아 장엄하고 강은 더 유유히 흘러 평화롭다.

또한, 시인은 자연과 더불어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 그는 서정적 자아의 입을 통해 나이 오십을 넘기면서도 자연의 섭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백한다. ㉤ 오십 줄의 적지 않은 나이에 반복되는 세월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인간적 고뇌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이다.
② 이상적 세계의 도래를 위한 원동력이다.
③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
④ 화해를 위한 정화와 재생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⑤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불꽃을 의미한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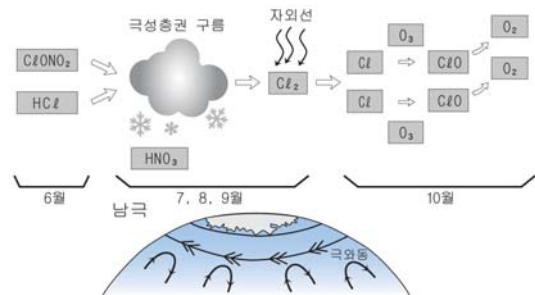
성층권(고도 약 11~50km에 위치한 대기층) 내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의 생명체를 자외선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러나 인류 활동의 증가로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점차 얇아지고 있다. 특히 남극 주변은 오존홀(ozone hole)이 생길 정도이다. 에어컨의 냉매제나 스프레이 등에 사용된 프레온 가스의 염소가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프레온 가스는 남반구가 아닌 주로 인구가 밀집한 북반구에서 대량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존홀은 북반구에서 더 뚜렷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오존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자. 성층권 상부에서 산소 분자(O_2)는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받아 산소 원자(O)로 분리된다. 분리된 산소 원자는 불안하여 주변의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O_3)을 만든다. 이 생성 과정은 25km보다 높은 고도에서 진행되나, 생성된 오존은 혼합을 통해 점점 아래층으로 전달된다. 여기서는 긴 파장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오존의 파괴가 진행된다. 즉 오존이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의 형태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존

의 생산과 파괴의 매우 정교한 자연의 균형에 의해 ㉠ 성층권 25~30km 사이는 오존이 풍부한 오존층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극의 오존홀 형성에 영향을 미칠까? 9,10월이 남극의 오존홀이 가장 뚜렷해지는 시점이므로 그 이전 시기인 남반구 겨울(6,7,8월)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반구는 겨울이 되면 햇빛의 유입이 적고 복사 에너지의 유출이 계속되어 냉각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게다가 이 때 ‘극 와동(남극 대륙을 감싸는 동서 방향의 강한 강풍대)’이 형성되어 적도와 남극 사이의 공기 순환을 차단함으로써 따뜻한 저위도의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남극 주변의 냉각을 가속화한다. 이로 인해 남극 주변의 성층권 공기 온도도 점차 냉각되는데 대략 7,8월이 되면 영하 90℃에 이르게 되어 구름이 생성된다. 이를 극성층권 구름이라고 부른다.

한편 오존홀 형성의 주요 원인인 프레온 가스의 염소는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6월에는 성층권에서 염화수소(HCl)나 질산염소($ClONO_2$)의 형태로 일시적이지만 안정된 상태로 보관된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져 극성층권 구름이 형성되면 질산염(HNO_3) 결정들이 빠져나가고 구름은 염소 분자(Cl_2)를 내놓는다. 그 후 겨울이 지나 9월이 되면 남극 주변에도 전에 비해 많은 양의 자외선이 유입된다. 이 때 염소 분자가 자외선에 의해 염소 원자로 분해되고, 이들이 오존과 결합해 산소 원자를 빼앗아 오존을 산소 분자로 만든다. 보통 염소 원자 하나가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한다고 한다. 이러한 오존층 파괴 현상은 10월까지 지속되어 남극 하늘에 오존이 거의 없는 오존홀이 형성된다. 게다가 이 때도 극 와동 세력은 강하여 저위도의 풍부한 오존이 남극 지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버린다.



그렇다면 북극은 어떠한가? 여기에서도 역시 극 와동이 존재한다. 극 와동은 지구의 자전 현상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극에서처럼 강하게 발달하지는 않는다. 북반구에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로키 산맥 같이 높은 산이 있는 대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적인 굴곡이 동서 방향의 주된 흐름을 방해하여 남북 방향의 흐름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마치 ()과 같은 것이다. 이로 인해 남쪽의 좀 더 높은 온도의 공기가 북극으로 유입되어 성층권의 온도는 남극보다 높으며 극성층권 구름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즉 성층권 구름의 발달이 약해 오존의 파괴가 남극에 비해 심하지 않은 것이다.

20.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오존층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② 오존층은 어떻게 생성되며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③ 오존홀이 남반구에서 더 뚜렷한 이유는 무엇인가?
④ 오존홀 형성에 프레온 가스는 어떻게 관여하는가?
⑤ 오존층 형성에서 극성층권 구름의 역할은 무엇인가?

2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산소 원자가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 ② 복사 에너지 유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 ③ 자외선의 양과 영향력이 가장 적기 때문에
- ④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 ⑤ 온도 분포가 일정해 대기 순환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22. ㉡에 들어갈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이 담긴 수조에 젓가락을 넣으면 휘어져 보이는 현상
- ② 벽에 차가 충돌하면 벽뿐만 아니라 차도 망가지는 현상
- ③ 욕조에 물을 뿔 때 배수구 쪽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 현상
- ④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면 물이 바위 주변으로 흩어지는 현상
- ⑤ 수면에 돌이 떨어져 생긴 물결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

2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극이 계속 겨울이라면, 오존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염소 원자가 없다면, 성층권 오존층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 ③ 지구의 자전이 없다면, 남극의 오존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④ 남극의 오존홀이 없어진다면, 북극의 오존홀이 뚜렷해질 것이다.
- ⑤ 북극 주변이 평평한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오존홀이 뚜렷해질 것이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당 방위에는 두 가지 기본 사상이 깔려 있다. 그 하나가 자기 보존의 사상이다. 누구나 타인의 위법한 공격에 직면할 때 자기 자신 또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 할유(享有)하는 이익이 눈앞에서 위법·부당한 공격으로 침해되는 것을 보고서도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 피하는 것이냐'라고 달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은 보통 사람들

에게 오히려 이 경우 자기 보존을 위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킬 선제 공격이나 기선을 ㉣ 제압(制壓)하는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방위는 개인의 자기 보존 사상 외에도 법이 무엇인가를 확충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상을 밑에 깔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법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자는 이로써 법 질서 전체의 효력까지도 방어하는 것이다. 이 사상을 옛날부터 '부정(不正) 대 정(正)의 원칙'이라고 불러 왔다. 즉 법은 불법에 양보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것이 부당한 것에 길을 비켜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법 질서 전체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 방위의 옳음에 대한 ㉤ 신봉(信奉) 때문에 정당 방위는 가차 없는 방어 수단을 들이대도 허용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침해 받은 이익이 재산적 가치밖에 없는 것인데도 방어 수단으로는 그 공격자의 인명에 손해를 가해도 허용된다.

정당 방위의 이 같은 과단성(果斷性)*이 제대로 인식된 것은 우리 법 문화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 방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아직도 큰 이익과 작은 이익의 갈등 사이를 비교하려는 법익 교량(法益較量)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부정(不正) 대 정(正)의 사상은 피해자가 도망할 수 있는 경우에 도망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에게 공격한 경우까지도 허용하는 입장이다. 부당한 공격에 정당한 것이 길을 비켜야 할 이유가 없듯 공격을 당하는 자에게 비겁하게 도망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당 방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기 보존과 법 질서의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칙적인 금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정당 방위가 당당히 나서서 꼭 실현해야 할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격한 정당 방위에도 그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먼저 방어 행위는 사실상 방어의 필요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방어자는 위법한 공격에 대해 불안정한 방어 수단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주먹으로 방어해도 될 일에 무기를 사용했다 해서 언제나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어자는 공격을 확실하고 위험 없이 막기 위하여 많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중 가장 ㉥ 경미(輕微)한 것으로도 중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방어 행위는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여야 한다. 법 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방어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라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요구된 행위이기 위해서는 ㉦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相當性)**이 있어야 한다. 방어 행위에 의해 ㉧ 야기(惹起)된 손해가 공격 위협에 비해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룰 때 정당 방위의 자기 보존 근거가 탈락된다. 만약 이 같은 극단적 불균형이 존재함에도 방어 행위를 실행한다면 그것은 권리 남용일 뿐 정당 방위는 아니다.

*과단성: 일을 딱 잘라 결정하는 성질

**상당성: 어떤 일이 어떤 경우나 상태에 알맞거나 합당한 상태를 이루는 것

24. 글쓴이의 집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당 방위의 한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 ② 정당 방위의 기본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 ③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 ④ 정당 방위의 사상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서
- ⑤ 정당 방위의 자기 방어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25. <보기>에 나타난 '길동이'의 행동에 대한 평가이다.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 보 기 〉

시장에서 길동이와 걱정이의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질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로 싸움은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분을 삭이지 못하는 눈치였다. 시장에서 볼 일을 다 본 후 집으로 가던 길동이는 골목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걱정을 만났다. 걱정은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감정이 격해졌고, 순간 길동이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휘둘러 걱정이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 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자기 보존의 사상을 취한 행위라고 생각해.
- ② 공격 위협에 대비해 방어 행위가 과격하게 표출된 경우로 권리 남용이라 생각해.
- ③ 상대방의 공격에 적극적인 방어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최선의 행동이라 생각해.
- ④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도망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해.
- ⑤ 법질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不正)대 정(正)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26.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당 방위는 법 질서상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이어야 한다.
- ② 방어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방위하는데 적합한 행위이어야 한다.
- ③ 방어 행위는 침해된 법익과 보호된 법익 간의 극단적인 불균형이 금지되어야 한다.
- ④ 방어 행위는 가급적 가장 피해가 적으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정당 방위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향유(享有) - 누려서 가짐
- ② ㉢ 제압(制壓) - 압력을 넣어 위협함
- ③ ㉣ 신봉(信奉) - 옳다고 믿고 받들
- ④ ㉡ 경미(輕微) - 가볍고도 극히 적음
- ⑤ ㉢ 야기(惹起)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28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향인의 결혼식도 잦았지만 장례식도 잦아졌다. 동향인이 모인 자리에도 세대 교체 현상이 나타나 나잇살이나 먹은 이들이 점점 줄었다. 너무네 아저씨의 ㉡ 자랑을 들어 주고 칭송할 사람도 그만큼 줄었다. 자신의 내력이 더 이상 자신을 빛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너무네 아저씨는 눈에 띄게 풀이 죽어갔다. 나는 그런 허점을 놓칠새라 젊은 사람들한테 그가 한 짓을 풍겼다. 젊은이들의 반응은 노인들의 반응과 판이했다. ㉢ 우린 이미 너무네 아저씨가 신봉하던 케케묵은 도덕과는 상관 없는 세대였다. 그건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게 웃음거리라면 너무네 아저씨는 더 큰 웃음거리였다. 좀더 생각이 깊은 젊은이라면 너무네 아저씨가 자기 처자식에게 저지른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개해 마지않았고, 그를 슛제 징그러운 괴물 취급을 하려 들었다.

㉣ 그 무렵부터 성표 형이 삼촌과 동행해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삼촌의 행색은 어딘지 자꾸만 초라해졌다. 성표 형이 돈 잘 번다는 소문 때문에 그의 초라함은 더욱 눈에 띄었고 악의에 찬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돈 잘 버는 조카한테 자가용 좀 내달랄 것이지 왜 걸어오셨느냐는 등, 돈 잘 버는 조카 돈 삼촌치곤 너무 추비한테 돈 잘 버는 조카가 싸구려 양복을 해 드렸을 리는 없고, 홀아비티가 그렇게 추비한 모양이니, 돈 잘 버는 조카한테 새장가나 들어달래라는 등,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이들이 맞대놓고 놀려먹었다.

그러다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도 동향인이 모이는 자리에 발을 끊게 됐다. 아버지의 등쌀에 못 이겨 동향인의 모임에 나갔다가 뿐 나의 고향은 이제 서울이었다. 내 자식의 고향이 서울이니까 그 사이에 나도 중년으로 접어들어 아버지에게 속하기보다는 자식들에 속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멍청하게 치든 아저씨의 눈에 내 눈을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악을 썼다.

“아무도 못 알아보요.”

아주머니가 옆에서 일러줬다.

“말은요?”

“말을 하면 사람을 알아보대요.”

아주머니는 말은 못해도 속으론 사람을 다 알아볼 거란 자신의 말을 이렇게 반복했다.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내가 돌봐 드린 지가 석 달이 넘는데 그전부터 그랬나 봐요. 나 같은 사람이 수없이 갈렸다니까.....”

“가만히 좀 계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하세요.”

나는 노인이 입을 쭉긋대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글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니까요. ㉡ 인기척이 나니까 먹을 걸 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뭔지, 저 지경이 되고도 먹는 거라면 저렇게 상성이예요. 사람 그림자만 얼얼대도 입 먼저 내들르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 줄 아시면 얼른 잡술 걸 좀 해다 드리세요.”

나는 벌떡 화를 냈다.

“아니, 이 양반이 누구한테 함부로 역정을 내고 그래요. 창자가 말라 죽지 않을 만큼은 드리니까 걱정 말아요. 그래도 똥에서 헤어 나질 못하는데 입 내두르는 대로 퍼넣었다간 누구 똥구멍이에 빠져 죽는 꼴 볼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가 남비를 덜컥댔다.

“아저씨,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아저씨?”

나는 아저씨가 입을 괴롭게 쭈긋대는 게 암만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또 다시 이렇게 악을 썼다. 입만 아니라 멍청하던 눈에도 초점과 빛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감정 표현도 힘에 겨운 듯 이불 밖으로 나온 앙상한 손이 꿈틀꿈틀 경련을 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멀건 죽남비를 갖고 들어와 노인의 쭈긋대는 입에 퍼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 뜻밖에 그는 이를 악물면서 도리질을 했다.

“에그머니, 이제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웠나 봐. 곡기 끊으면 죽는 다는데…….”

아주머니가 경망스럽게 손갈을 내던지며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확신을 얻고, 그의 경련치는 손을 잡고 애타게 외쳤다.

“아저씨, 너우네 아저씨,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네, 너우네 아저씨,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윽고 아저씨의 손에 힘이 켜어지는 듯하더니 입놀림이 확실해졌다. 나는 그의 멍청하던 눈에 그윽한 환희가 어리는 걸 똑똑히 보았고 그의 입이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 “은표야, 아아, 은표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그의 아들을 뿌리치고 대신 조카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뒤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은표의 단짝이었던 나를 보면 은표도 어느 하늘 밑에 죽지 않고 살았으면 저만할 텐데 하고 비감하는 눈치라도 보일 법한데, 한 번도 그런 적조차 없었다. 그는 아들을 뿌리칠과 동시에 아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렸을 뿐더러, 아예 기억에서 지우고 사는 사람 같았다. 아들 대신 장조카 데리고 피난 나왔다고 자랑할 때의 아들도 보통 명사로서의 아들이지 은표라는 고유 명사로서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입에 올린 은표 소리는 나만 겨우 알아들을 만큼 희미했다. 그러나 내 귀엔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아, 삼십여 년 전 은표 어머니의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제서야 양ज्ञ음을 완수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길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 왔을 터인데도 채감보다는 허망함에 소스라쳤다.

다시 열쇠 고리 장수가 늘어선 거리로 나왔을 땐 해가 뉘엿뉘엿했다.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이면 가슴에 하나 가득 갖가지 자물쇠를 늘인 채 봉지 짚과 자반 고등어를 사들고 뒤통뒤통 걸어오던 너우네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봉지 짚과 자반 고등어 때문인지 자물쇠가 훈장으로 보이는 엉뚱한 착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 그는 의롭고 초라한 자물쇠 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직시(直視)할 수 있기까지 자그만치 서른 두 해가 걸렸던 것이다.

— 박완서, 「아저씨의 훈장(勳章)」—

28. 위 글의 서술상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등장 인물의 심리 변화를 그려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② 회상의 방식으로 서술자 자신의 삶의 과정을 술회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배경을 묘사하여 이어질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사건을 인물의 입장에 따라 재해석하고 있다.

29. 위 글을 읽고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아저씨가 소중하게 보살폈던 조카에게 외면당하는 모습
- ② 아저씨가 결혼식장에서 자기 삶의 내력을 자랑하는 모습
- ③ 아저씨가 동향인의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
- ④ 아저씨가 통곡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피난길을 떠나는 모습
- ⑤ 아저씨가 동향인의 모임에 성표와 동행하여 자랑하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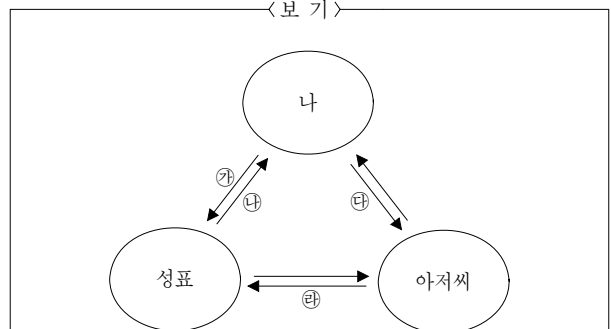
30. ㉠에 담긴 의미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전통적 가치관예의 집착이 드러나 있다.
- ②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③ 한국 전쟁이 낳은 아픔이 나타나 있다.
- ④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 ⑤ 내면적 고통이 드러나 있다.

31. ㉡ ~ ㉢ 중에서 ㉣과 같은 판단의 근거로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보기>는 인물 간의 심리적 태도를 구조화하여 설명한 것이다. 설명의 내용이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 ㉡ 아저씨를 소홀히 대하는 성표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 ㉢ 아저씨에게 관심을 갖는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 ㉣ 은표가 아닌 성표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 ㉤ 성표를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근대 국어는 보통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이른다. 근대 국어의 자료 중에는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 언해(諺解)가 많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즉 중세 국어에 많았던 불경 언해 대신 경서 언해가 많아진다. 기존 언해본의 중간본들이 많아지고 의서(醫書) 등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다. 17·18세기 자료에서 역학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과 19세기 자료에서 소설 내지 가사(歌辭) 등의 문학 작품이 많아지는 것도 근대 국어 자료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7세기의 근대 국어에는 중세 국어에 있었던 유성 마찰음(ㄲ·ㄷ)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음 /·/의 소절은 2음절 이하에서 그 소멸이 시작되어 어두 음절로 확대된다. 중세 국어에 있었던 성조(聲調)가 없어졌고,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ㄷ·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 /ㅈ·ㅊ/으로 된 사실과 18세기 중엽에 어두 음절의 /·/마저 /ㅏ/로 변화했고, 그 뒤를 이어 이중 모음 /ㅝ/와 /ㅞ/의 단모음화(單母音化)가 일어난 것은 특징할 만하다.

근대 국어의 문법 체계를 중세 국어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간소화, 즉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의 지향을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선어말 어미 ‘-오/우-’가 없어졌으며, 경어법도 중세 국어의 존경법·겸양법·공손법의 체계에서 존경법과 공손법의 체계로 바뀌었다. 중세 국어에 잡다했던 강세(強勢)의 첨사들이 많이 소멸되어 ‘야·곳’ 등만이 남게 되었다.

한편 어휘 부문에서는 한자어가 확대되어 고유어(固有語)들이 소멸되기도 한다. 그 대신 한자어는 더욱 증가했는데, 당시의 한자어에는 현대 국어의 그것과 의미가 다른 것도 적지 않았다. 또한 서양의 문물이 중국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도 새로운 한자어를 추가시켰는데, 대개 천문·지리·종교 등에 관한 어휘들이었다. 그리고 정치적·문화적 교류에 의한 차용어(借用語)가 중국어·몽고어·만주어에 걸쳐 많이 유입된 것도 근대 국어 어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근대 국어 시기는 근본적으로 인지의 발달과 계급 사회의 동요로 어휘량이 늘어나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부문에서 모두 양적 확장을 보여 준다. 고유어에서는 논리, 개념어 부문이 한자어에 의해 점령당한 것을 ㉠ 빼면 형용사, 부사와 같은 감정어류에서의 다양한 생성과 소멸을 현전하는 소설, 판소리, 시조, 가사, 잡가 등의 문학 작품류에서 보여 준다.(어미미치다, 행가림, 구브락비기락, 일락배락, 허위허위, 설피설피, 팽당그르르 등) 아울러 더욱 난해한 한자어류가 도입되었다. 물론 근대 시기에는 고유어의 한자에 의한 대치 현상 역시 심화되었으니 중세의 ‘번역박통사’(1517이전)의 언해문에 나온 고유어가 근대에 나온 ‘박통사언해’(1677)에서 한자어로 바뀐 예가 이를 잘 보여 준다.(아습→권당 : 니건히→前年 : 흥정ㅈ습→貨物 등)

외래어 부문도 ‘고유어-한자어-소수 외래어’로 안정되어 오던 체계가 근대 문물의 수입과 함께 중국의 백화계* 차용어들을 점증 수용하면서 외래어 차용이 증대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만주계(넬쿠, 소부리), 일본어계(고구마, 담배) 외래어도 조금씩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미한 정도이며 문화의 주된 공급처가 중국이었기에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부문에서 외래어의 안정적 공급원은 생활 문물어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였다.

*백화계 : 중국 청나라 때에, 중국 관청에서 쓰던 표준말로 현재 중국에서 쓰는 구어체 언어 계열을 말한다.

33.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국어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는 외래어도 도움이 된다.
- ② 어휘들을 통해서 문화 교류의 양상을 추리해 볼 수 있다.
- ③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바뀌면 어휘의 특질이 변할 수 있다.
- ④ 문법 체계가 바뀌면서 경어법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⑤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에 비해 문법 체계의 간소화를 지향하였다.

34. [A]의 내용을 뒷받침할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자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이 북경으로부터 들어왔다.
- ② ‘뫼’가 ‘산(山)’으로, ‘ㅈ’이 ‘강(江)’이라는 한자어로 대치되었다.
- ③ ‘방송(放送)’은 석방(釋放)을 ‘발명(發明)’은 변명(辨明)을 의미했다.
- ④ ‘망건(網巾)’, ‘무명(木棉)’과 같은 중국어 차용어가 많이 유입되었다.
- ⑤ ‘중생(衆生)’은 ‘유정물’ 전체의 의미에서 인간을 제외한 ‘짐승’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35.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한자어의 확장’이 지속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우리말과 중국어의 근원이 같기 때문에
- ② 국가 간의 문법 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 ③ 주로 중국을 통해 문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 ④ 한자 차용 표기가 의미 전달에 효율적이라서
- ⑤ 한자어가 다양한 감정어류의 생성에 유리해서

36.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 언어의 어떤 소리가 다른 언어의 어느 소리와 체계적으로 대응이 될 때, 그 두 언어는 동조어(同祖語)일 가능성이 높다. 영어와 독일어는 서로 갈라진지 오래되지 않은 사이인데, 영어의 /t/ 소리가 독일어에서는 모두 /z/ 소리로 대응된다. 한국어의 ‘봄’이 만주어에서는 ‘폰’으로 대응되는 것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① 언어의 체계에 따라 사고 방식이 달라진다.
- ② 언어에서 음성과 의미의 결합은 임의적이다.
- ③ 각 사회의 계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 ④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표현한다.
- ⑤ 언어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체계를 지닌다.

37. ㉠의 ‘빠다’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그는 밥 먹는 시간을 빠고는 종일도록 책만 보았다.
 ②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을 빠고 앉아 있었다.
 ③ 누가 방에 냄새를 빠려고 창문을 모두 열었다.
 ④ 그는 목청을 길게 빠면서 구경진 노래를 했다.
 ⑤ 나는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서 돈을 빠 쓴다.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47년 10월 14일, 인간이 처음으로 소리를 따라잡았다. 미국의 한 비행사가 X-1 로켓 비행기를 타고 모하브 사막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 기지를 이륙해 음속의 1.05배, 즉 마하 1.05를 기록했다. 그런데 최초의 음속 돌파 순간에 지상의 엔지니어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폭발음을 들은 것이다.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한 소음이었다. 즉 소닉붐이 이날 처음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27일, 미 해군의 F-5E기는 마하 1.36에서도 소닉붐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초음속 비행의 상징이었지만 기필코 없애야 할 애물단지가 된 소닉붐. 이 소닉붐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소닉붐은 비행기가 발생시키는 음파가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충격파(shock wave)’다. 수면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장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배가 물 위를 갈 때도 물결파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배가 이 물결파보다 빨리 가게 되면 배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V자 모양의 물결이 발생한다. 이는 배가 물결파보다 빨리 가면서 주위의 물결파가 합쳐지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난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주변 공기가 밀려나면서 압력을 전달하는 파동이 소리의 속도로 퍼진다. 그런데 비행기가 음속 이상으로 날아가면 기체(機體) 앞쪽으로 퍼지는 파동을 따라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 주변으로 퍼지는 파동이 서로 뭉쳐져 V자형의 강한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 결과 비행기 앞부분에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반대로 다시 급격히 감소한 다음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충격파는 배의 경우에서처럼 뾰족한 비행기 앞부분과 뒤편에 형성된다. 비행기 주변의 압력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마치 N자와 같은 모양이 되므로 ‘N파(N wave)’라고도 한다.

소닉붐은 이 충격파가 지상에 도달할 때 우리 귀에 느껴지는 폭발음이다. 보통 초음속 비행기가 지나갈 때 두 번의 소닉붐을 듣게 되는 것은 비행기의 앞부분과 꼬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압력 변화 때문이다.

소닉붐의 발생에는 비행 고도, 비행 경로, 기상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여기에 비행기의 형태와 성능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970년대부터 비행기를 개조해 소닉붐을 줄이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마침내 2003년 8월에 노드롭 그루먼사는 미 해군이 제공한 F-5E기 앞머리에 ‘코 장갑(nose glove)’이란 이

[A]름이 붙은 구조물을 장착해 펠리컨 부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또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을 덧대어 날개와 동체 사이의 각도를 줄였다. 충격파는 비행기 앞, 조종석, 공기 흡입구, 날개, 기체 후방 등 튀어나온 부분에서 주로 생성되는데 이러한 구조물들이 동체와 날개 사이, 비행기 앞머리 아래의 각도를 줄여 충격파가 잘 생성되지 못하게 하였다.

노드롭 그루먼사의 한 책임자는 “이 기술은 초음속 여객기가 거주지 위를 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나사와 노드롭 그루먼사는 다양한 기상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계속해 비행기 형태 변화가 소닉붐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증할 것이다. 또 특수 촬영 장비로 비행기 주변에 형성되는 충격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콩코드기의 한을 ‘조용히’ 풀어줄 새로운 초음속 여객기가 한창 태동 중이다.

38. 위 글에 표제와 부제를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음속 신비의 문을 열다
 - 드디어 밝혀진 초음속의 비밀
 ② 조용한 초음속 시대 열리다
 - 소닉붐 감소 시험 성공
 ③ F-5E기의 제작 공정 밝혀지다
 - F-5E기의 기술 소닉붐 제거
 ④ 인간이 처음으로 소리를 따라 잡다
 - 최초의 음속 돌파 성공
 ⑤ 최초의 초음속 비행 시험 선보이다
 - 미국의 발전된 항공 기술

39.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 보 기 —

- ㄱ. 대상의 변화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ㄴ. 대상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ㄷ. 문제 발생 원인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ㄹ. 문제를 제기한 후 실험 결과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의 () 속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 < 보 기 —

배가 항해할 때 생기는 ‘V자 물결파’와 전투기가 비행할 때 ‘충격파’가 생기는 원인은 모두 배와 전투기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 ① 크기 ② 속도 ③ 방향 ④ 재질 ⑤ 무게

41. 위 글의 [A]와 <보기>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003년 8월 27일 미 해군의 F-5E기가 시연해 낸 것은 바로 항공기의 외형을 특수하게 만들 경우, 공기 중에 발생하는 압력파가 서로 만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쪽저쪽의 압력과 돌이 만나야 ‘뽕’ 터지는 소리가 날 터인데, 돌이 만나지 못하도록 비행기 형상을 만들었으므로, 음속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지상에 전달되는 공기압의 파장은 미미하여 실제 소닉붐이 발생할 때 들리는 굉음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수준의 소리만이 전달되는 것이다.

- ① 갑 : 전투기의 앞부분이 둥글고 몽툰한 모양으로 이전의 전투기와는 외형부터 다르게 만들어졌어.
 ② 을 : 소닉붐의 가장 큰 원인을 압력파에 두고 이를 방지하는 것에 실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③ 병 : 사람들에게는 전투기에서 생기는 압력파의 파장이 지상에 닿는 순간 소닉붐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④ 정 : ‘붐’이 ‘천둥 치는 소리’라는 뜻인 것처럼 소닉붐은 음속이라는 장벽을 뚫고 발생하는 ‘뽕’ 터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
 ⑤ 무 : 소닉붐을 줄이는 결정적인 요인은 알루미늄 구조물로 기체를 가볍게 하여 충격파를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는 것 같아.

[42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때 심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 죽지 못하여 근근히 살아갈 제, 도화동 사람들이 심소저가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불쌍히 여겨 타루비(墮淚碑)를 세우고 글을 지었으니,

앞 못 보는 아버지 위해
 제 몸 바쳐 효도하러 용궁에 갔네.
 안개 어린 바다에 마음만 떠 있으니
 봄 풀에 해마다 한이 서린다.

가는 행인이 비문을 보고 아니 우는 이 없고, ㉠ 심봉사는 딸이 생각나면 그 비를 안고 울었다. 마을 사람들이 심맹인의 돈과 곡식을 늘려서 집안 형편이 해마다 늘어갔다.

(중략)

집안 살림이 점점 줄어드니, 심봉사가 생각다 못해서,
 “여보소, 뽕덕이네. 우리 형편 착실하다고 남이 다 수군수군하더

니, 근래에 어찌해서 형편이 못 되어 다시금 빌어먹게 되어 가니, 이 늙은 것이 다시 빌어먹자 한들 동네 사람도 부끄럽고 내 신세도 말이 아니니 어디로 낫을 들어 다니겠는가?”

뽕덕어미가 대답하되,

“봉사님, 여태 잡수신 게 무엇이오? 식전마다 해장하신다고 죽 값이 여든두 냥이요, 저렇게 갑갑하다니까, 낱아서 키우지도 못한 것 뻔다고 살구는 어찌 그리 먹고 싶던지, 살구 값이 일흔석 냥이요, 저렇게 갑갑하다니까.”

[A] 심봉사가 측은 타지만 헛웃음 웃으며,

“야, 살구는 너무 많이 먹었다. 그렇지만은 ‘계집 먹은 것은 쥐 먹은 것’이라 하니 따져 봐야 쓸 데 없다. 우리 세간 기물을 다 팔아 가지고 타향으로 가세.”

“그리고 싶으면 그리하십시오.”

약간 남은 살림살이 다 팔아서 이고 지고 타향으로 떠돌이 생활에 나섰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심소저 월노방연(月老芳緣)의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돌려 보내어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심소저를 보내실 제,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시녀를 곁에서 모시게 하여 아침 저녁 먹을 것과 비단 보배를 많이 넣고 옥 화분에 고이 담아 인당수로 보내었다. 이 때 사해용왕이 친히 나와 전송하고 각궁 시녀와 여덟 선녀가 여쭙기를,

“소저는 인간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와 영광으로 만만세를 즐기소서.”

소저 대답하되,

“여러 왕의 덕을 입어 죽을 몸이 다시 살아 세상에 나가오니 백골 난망(白骨難忘)이오. 모든 시녀들과도 정이 깊어 떠나기 섭섭하오나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이별하고 가기는 하지마는 수궁(水宮)의 귀하신 몸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순식간에 꿈같이 인당수에 번듯 떠서 뚜렷이 수면을 영롱케 하니 천신의 조화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바람이 분들 끄덕하며 비가 온들 떠내려 갈조나.

오색 무지개가 꽃봉이 속에 어리어 등덩실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역십만 금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인당수에 다달아 배를 매고 제물을 깨끗이 차려 용왕에게 제를 지내면서 비는 말이,

“우리 일행 수십 명 몸에 재액을 막아 주시고 소망을 뜻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용왕님의 넓으신 덕택을 한 잔 술로 정성을 드리오니, 어여빠 보셔서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제를 올린 뒤에 제물을 다시 차려 심소저의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위로한다.

“출천(出天) 효녀 심소저는 늙으신 아버지 눈뜨기를 위하여 젊은 나이에 죽기를 마다 않고 바다 속 외로운 혼이 되었으니 어찌 하니 가련하고 불쌍하라? 우리 뱃사람들은 소저로 말미암아 장사에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지마는 소저의 영혼이야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까? 가다가 도화동에 들어가서 소저의 아버지 살았는가 여부를 알아보고 가오리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알으심이 있거든 영혼은 이를 받으소서.”

제물을 풀고 눈물을 쏟고 나서,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송이 꽃봉이 너른 바다 가운데 등덩실 떠 있으니 뱃사람들이 괴이히 여겨 저희들 끼리 의논하기를,

“아마도 심소저의 영혼이 꽃이 되어 났나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심소저가 빠졌던 곳이어서 마음이 감동하여 꽃을 건져내어 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생겼고 두세 사람이 넉넉히 앉을 만했다.

“이 꽃은 세상에 없는 꽃이니 이상하고 고이하다.”

하고 정하게 신고 올 제, 배 빠르기가 화살 날듯 하였다. 네다섯 달이나 걸리던 길을 며칠 만에 다다르니, 이도 또한 이상하다 할 것이었다. 돌아와서 억십만 금이 넘는 재물을 다 각기 나누어 가질 적에, 도선주는 무슨 마음에서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자기 집 깨끗한 곳에 단을 쌓고 두었더니 향취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 완판본, 「심청전」 —

4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②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
- ⑤ 대화체를 통해 생동감 있게 진술하고 있다.

43.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용왕에게 지내는 제사는 사실감이 드러나도록 역사적 고증을 거치는 것이 좋겠어.
- ② 옥황상제와 사해용왕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어울리게 옷차림과 분장에도 신경을 써야겠어.
- ③ ‘타루비’를 세우는 장면에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절함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
- ④ 심봉사 내외가 마을을 떠나는 장면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게 연기하도록 해야겠어.
- ⑤ 심청이 꽃봉오리를 타고 물위에 떠오를 때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해야겠어.

44.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보 기 —

“영감아, 지난 달부터 밥 구미는 푹 떨어지고 신 것만 구미가 당기니 어째서 그런가 모르겠요.”
 “파야하하, 거 그러면 태기가 있을란가부네. 어찌튼 하나만 낳아. 그런데 신 것이 구미가 당기면 무엇을 먹는가.”
 “아, 살구 먹었지요.”
 “살구는 얼마나 먹었는고.”
 “아, 씨 되어 보니 닷말 서 되입니다.”
 “거 신 것을 그리 많이 먹어. 그 놈은 낳드라도 안 시건방질 가 몰라. 이것 농담이요.”

- 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② 재치 있는 언어 사용으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
- ③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 ⑤ 중심 인물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45. ㉠에서 ‘심봉사’의 심정을 시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피다 버린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② 언제나 내 더럽혀지 않을 / 티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러 했던 만 /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 신석초, 「바라춤」
-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 신경림, 「목계장터」
- ④ 당신 나중 흩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 내 남아 발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 도종환,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 ⑤ 아아 내 가슴에 / 떨어진 유성(流星)아. / 밤비는 / 너는 울음이었다. // 땅이 움직여도, / 산에 돌이 떨어져도 / 네가 온통 / 이 세상에 / 많은 것 같구나. // 내 가슴에 묻혀 있는 / 너의 무덤 / 해마다 무슨 꽃으로 / 피어 주련. — 이성교, 「밤비1」

46.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늙으신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자 이름난 의원이 사랑하는 자식을 가마술에 삶아서 어머니를 드리면 낫는다고 하매, 사내는 눈물을 머금고 서당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을 가마술에 삶아 어머니를 드렸더니 병이 즉시 나았다. 그런데 또 아들이 들어왔다. 이상하여 가마술을 살펴보니 먼저 온 아들은 산삼이었다. 산신령이 효심에 감동하여 산삼을 아들로 만들어서 먼저 집에 보낸 것이었다.
— 산삼동자 설화 —

	<심청전>	<산삼동자 설화>
① 효자(행위자)	심청	사내
② 효의 희생지	심청	자식
③ 효도 행위	인당수에 빠짐	가마술에 넣음
④ 기적의 주체	뱃사람	산신령
⑤ 효행의 목적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아픈 어미를 살리려고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줄기가 길을 가르는 곳, 길과 길이 떨어진 곳에서 길을 이어 주는 것은 다리[橋]이다. 처음의 다리는 적당한 크기의 돌 몇 개를 이어 놓은 징검다리였을 것이다. 건축적 의미가 별로 없는 불완전하고 불편한 원시적인 다리이다. 이것보다 좀 더 실용적인 다리를 연구하면서 등장한 다리가 흙다리나 나무다리이다. 그러나 이것도 재료의 특성상 임시방편이었을 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돌다리이다.

내구성이 강한 돌다리는 보다리 형식과 구름다리 형식으로 가설되었는데 돌을 걸쳐서 만드는 보다리 형식보다 구름다리 형식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조이다. 보다리가 수수한 다리라면 구름다리는 조형미가 뛰어난 아름다운 다리이다. 민간 지역에서 주로 보다리를 놓은 데 비해 궁궐이나 사찰에서는 구름다리가 널리 사용되었던 것도 통로의 기능보다는 조형미가 앞섰기 때문이다. 특히, 사찰에서는 구름다리가 불교와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많이 쓰인 듯하다.

보다리는 널다리라고도 하는데 가운데 부분을 가장자리보다 다소 높혀 안정감을 주었고 중간을 처지게 하였다. 다리발의 위쪽 끝에 걸친 명에는 다리 폭보다 더 많이 바깥 쪽으로 튀어나와서 디딤돌을 받치고 있다. 다리 바닥인 디딤돌의 구조는 목조 건축의 우물마루를 깔듯이 했는데, 이는 인장력이 약한 석재의 단점을 보강해 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아름다움도 느끼게 한다.

보다리의 예로는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던 수표석(水標石)이 옆에 있어 수표교라 불리던 마전교가 있고, 길이가 무려 75.75미터 폭이 6미터에 이르던 살곶이다리도 있다. 임진왜란이나 한일합방 등의 국난 때에 울었다는 전설을 가진 진천 농교(농다리)도 이에 해당한다. 농교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인 사력암질인 다리발의 돌뿌리가 반대편 안쪽에서 서로 엇물리도록 쌓고 틈 사이는 작은 돌들로 메워 장마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

일명 구름다리라고 불리던 홍예다리(虹橋)는 돌을 쌓아 무지개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것인데 좌우에서 돌을 쌓아 올라가다 맨 위 가운데에 마지막 돌, 즉 이맞돌을 끼워 넣음으로써 완성된다. 홍예 건축의 매력은 가운데 이맞돌만 빠져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건물이나 성벽이 무너져도 홍예는 건재한 모습이 종종 발견되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홍예에선 돌과 돌 사이에 모르타르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라남도 승주 선암사에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홍교로 손꼽히는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특히 승선교는 홍예를 중심으로 좌우 계곡 기슭 사이에는 둥글둥글한 자연석으로 석벽을 쌓아 막았고 다리 좌우의 측면 석축도 난적(亂積) 쌓기 방식으로 자연미를 그대로 살렸다. 다리의 기반부에는 아무런 가설이 없고 자연 암반이 깔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홍수 때에도 다리는 급류에 휩쓸릴 염려가 없다. 홍예 맨 위쪽에는 물로 인한 재해를 막고자 ① 이무기돌을 설치해 놓았다.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의 경관을 살리면서 우아하고 견실한 다리를 축조한 선인의 슬기가 새삼 놀랍기만 하다.

다리를 놓는 일차적인 목적은 건너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리가 길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징검다리에는 어린 시절의 동심이 어려 있고, 이야기 속의 다리지만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사랑이 있다. 종교에서는 세속과 영원한 세상의 연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길과 길을 이어주면서 각 지역마다 독특한 전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리와 관련되는 놀이 문화도 발달시켰

다. 옛 다리는 그 지역의 기념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웃 동네와 교류하면서 화합을 다졌다.

47.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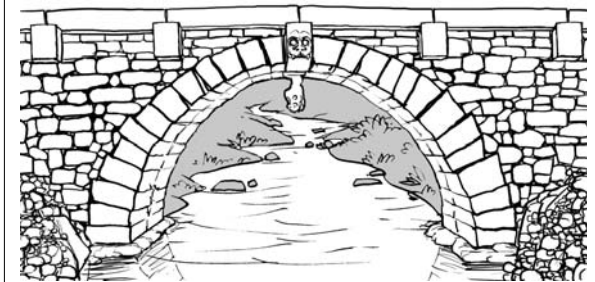
- ① 다리의 발전 과정
- ② 다리의 역사적 의의
- ③ 다리의 구조와 기능
- ④ 다리의 재료와 형식
- ⑤ 다리의 문화적 가치

48. 위 글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초대하는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잊혀져 가는 한국의 옛 다리를 찾아갑시다.
- ② 다리의 이맞돌, 그 신비의 기술을 밝혀 봅시다.
- ③ 선인들의 삶에 얽힌 다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④ 돌다리, 과학과 미학의 뛰어난 만남에 초대합니다.
- ⑤ 옛 다리의 재현, 그 축조의 과정을 따라가 봅시다.

49. 위 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다리 주위에 가공하지 않은 작은 돌들을 그냥 쌓아 올린 것에서 자연미를 느낄 수 있군.
- ② 둥글게 쌓아 올린 구름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다리 가운데 끼워 넣은 이맷돌의 역할 때문이겠군.
- ③ 궁궐이나 사찰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현세보다 내세를 중시하는 선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
- ④ 다리의 아래 부분부터 무지개 모양의 반원형을 이룬 것에서 기능보다 조형미를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어.
- ⑤ 접착제를 쓰지 않고도 돌과 돌 사이를 맞물려 튼튼하게 한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기술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군.

50. ㉠과 기능이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어귀에 숫대를 세우면 물난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 ② 정월에 '신액소멸'이란 글자를 쓴 연을 날려 재앙을 멀리 하자 하였다.
- ③ 설날에 석류나무 가지 사이에 돌맹이를 끼우면 열매가 커진다고 믿었다.
- ④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호두, 잣과 같은 부럼을 깨물어 무병장수를 빌었다.
- ⑤ 동짓날 팔죽을 쑤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 뿌려 악귀를 쫓았다.

[51 ~ 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명경**(明鏡)에 티 끼거든 값주고 닦을 줄
아희 어룬 없이 다 밋쳐 알거마는
값없이 닦을 **명덕**(明德)을 닦을 줄을 모르느다.

성의관(誠意館) 도라드러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혼길이 넓고도 곳다마는
엇지타 진일행인(盡日行人)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구인산(九仞山) 긴 술 베풀 **제세주**(濟世舟)*를 만들어 내어,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내주려 하였으나,
사공이 변변치 못해 저녁 강가에 모두 버렸구나.

— 박인로, 「자경가(自警歌)」—

*제세주(濟世舟): 세상을 구하는 배.

(나) 산중(山中)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놓고
만고(萬古)의 인물(人物)을 거슬러 세어 보니
성현(聖賢)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많고 많다.
하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무심(無心)하라마는
엇지 된 시운(時運)이 흥했다 망했다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품도 끝이 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허유**는 귀를 어찌 씻었던가?
박소리도 귀찮다 핑계하고 버린 허유의 조장***이 가장 높다.
인심(人心)이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는가?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진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을 타자꾸나.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 버렸도다.
높고 먼 하늘에 떠 있는 학이 이 고을의 진선(眞仙)이라.
이전에 달 아래서 혹시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곧 진선(眞仙)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허유: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였으나, 거절하고 터러운 소리를 들었다 하며 영천(潁川)에 귀를 씻었다는 인물.

***조장: 지조행장(志操行狀)의 준말로 지조가 있는 품행을 일컬음.

(다)

우리는 곧잘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한다.’라고도 하고,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는 ‘그릇이 작다.’라고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자는 ‘큰 그릇은 늦된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릇의 크기 차이는 결국 담을 수 있는 양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릇이며,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공자의 말을 보면 혼란스러워진다.

공자는 <논어>에서 ‘덕 있는 사람(군자)은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다. 도대체 공자가 생각한 그릇은 무엇이기에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고 한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그릇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느 날 번지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엉뚱하게도 “나는 오랜 경험을 지닌 늙은 농부보다 못하다네.”라고 잘라 말하였다. 하지만 공자의 말뜻을 못 알아챈 번지가 그렇다면 채소 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이 말에도 공자는 “나는 오래 일한 늙은 밭 일꾼보다 못하다네.”라고 답하였다. 두 번씩이나 무안을 당한 번지가 나가자, 공자는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 “번지는 소인이로다.”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소인이란 덕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덕 있는 사람은 그릇이 아니라 했으니 소인이란 그릇이라는 말이 된다. 그릇을 보자.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난 모양만 나오고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둥근 모양만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틀 지워진 사람, 즉 어떤 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기능인을 의미한다. 공자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쌓게 하는 데 있었지, 기능인을 만드는데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큰 그릇은 어떤 인물일까? 작은 그릇에 지식만 담겨 있으면 지식을 팔아먹고 사는 기술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욕심을 담더라도 자신만 위하는 욕심에 그칠 것이다. 그릇이 한없이 커야 욕심을 담아도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큰 욕심을 담을 수 있고

지식만이 아니라 덕을 답을 수 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그릇이 아니라는 말이나, 큰 그릇이 되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된다.

우리의 그릇에 영어나 컴퓨터 같은 기능과 남을 밝고 올려서겠다는 경쟁심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세심함 등을 담다 보면 어느새 그릇 아닌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 김교빈, 「큰 그릇이 되어 남 위한 욕심도 담고」 -

5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② 화자의 과거 삶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
- ③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⑤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52. (가)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명경(明鏡)’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 ② ‘명덕(明德)’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준다.
- ③ ‘오도가도 아닌 게오’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④ ‘제세주(濟世舟)’에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사공’은 능력이 부족한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5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성산별곡은 귀거래(歸去來 -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를 명분으로 삼고 때를 기다리며 쉬어가는 안식처로 자연을 인식하였던 16세기 조선조 사대부들의 전형적인 자연관이 여실히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성산별곡의 ‘주인’은 길으로는 자연에 융합된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이지만 현실적 시름에 결코 초연할 수 없었던 인물인 것이다.

- ① 주인이 처한 자연은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 ② 세속에 대한 비판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 ③ ‘허유’를 등장시킨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합리화이다.
- ④ 현실에서 밀려나게 된 원인을 세상의 운수로 돌리고 있다.
- ⑤ 자연에 묻혀 술을 마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달관의 태도이다.

54. (다)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해 논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 ②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현실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사물을 소재로 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④ 유추의 방식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예화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55. ㉠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보다 덕성이 중요함을 깨닫지 못해서
- ② 힘든 농사일의 경험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 ③ 무안을 당하고 나서 진리 탐구를 회피하기 때문에
- ④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남에게 의지하려는 태도 때문에
- ⑤ 학문 정진에는 힘쓰지 않고 농사일에만 관심을 쏟아서

[56 ~ 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는 각종 조사(調査)의 홍수 시대이다. 신문과 TV에서는 매일 같이 각종 그래프와 수치(숫자)로 장식된 다양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의 진실성 여부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는 그 목적에 따라 학술 조사, 시장 조사, 여론 조사 등이 있다. 그러나 목적과 내용의 차이에도 그 성격상 본질은 같다. 즉 전체(모집단)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전체의 결과를 ㉠ 예측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표본 조사(標本調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표본을 잘 뽑는 일이다. 표본은 모집단의 축소판 닮은꼴, 즉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성을 갖는 표본은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말한다.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에 속한 대상들이 표본에 뽑힐 확률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한다. 모집단이 사람인 경우에는 우연히 한쪽에 치우친 표본이 뽑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집단을 여러 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된다.

표본의 크기, 즉 몇 개의 표본을 뽑아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표본이 너무 작으면 모집단에 대해 잘못된 추정을 하기 쉽고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크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많아진다. 그러면 적당한 표본의 크기를 ㉡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기준은 모집단이 얼마나 다양한가와 조사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요구하는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50명 미만의 표본 수는 작은 것이고(통계적으로 30이하를 소표본이라 함) 전체 모집단의 10% 이상이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 된다. 조사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표본의 수가 달라지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경험과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는 여러 오류와 왜곡이 생길 수도 있다.

표본의 대표성 못지않게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자료를 ㉢ 수집하

능가도 문제이다. 자료 수집 방법은 개별 면접법, 우편 조사법, 전화 조사법 등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소요 시간과 비용, 질문의 양과 복잡도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응답률은 최소한 70% 이상, 즉 최초로 접촉한 사람의 70% 이상이 응답을 해야 최소한의 대표성이 유지된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앨버트 캔트릴의 말처럼 '여론 조사의 성패는 그 조사에서 묻는 질문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질문의 방식에 크게 좌우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유도성 질문이다. ㉠ 유도성 질문이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질문에 미리 깔아 놓음으로써 연연 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조사자의 주관적 의도나 편견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 개입될 수 있다.

통계 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두려움 없이 숫자를 대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숫자나 통계를 다루는 사람이 정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일반인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숫자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 숫자나 통계의 왜곡과 오용을 막고 숫자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사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일은 세상을 보는 ㉣ 안목을 넓히는 일이 된다.

5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표본(標本)은 조사 대상의 대표성을 갖는 집단이다.
- ② 질문 방식에 따라 조사자의 편견이 끼어 들 수 있다.
- ③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설문 결과의 정확성이 결정된다.
- ④ 숫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통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 ⑤ 표본 조사는 일부의 결과로 전체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57.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이번 연수에서 배운 바가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② ○○시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③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 ④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⑤ 당신은 사형 제도에 대해 찬성하니까? 반대하니까?

58. ㉡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표본의 대표성 여부
- ② 질문의 방식과 복잡도
- ③ 자료 수집 방법과 시간
- ④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
- ⑤ 조사자의 경험에 대한 의존도

59. ㉢ ~ ㉣를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렵잡아 해야된다
- ② ㉢: 마음대로 휘두르는
- ③ ㉢: 찾아 모으는
- ④ ㉢: 끼어들
- ⑤ ㉢: 분별력을

60.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본의 두 도시에서 신호가 바뀌고 나서 운전자들이 앞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데 소요된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 조사의 결과 도쿄가 약 4초인 반면 오사카는 2초였다. 오사카의 운전자들이 도쿄의 운전자들보다 두 배나 더 빠른 결과는 지역에 따른 사람들의 사회 심리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오사카가 도쿄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한다. 여기서 교통사고의 주원인의 하나가 운전자들의 서두르는 습관이라는 해석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 ① 표본이 되는 두 도시의 자동차 혼잡도가 비슷한 지가 밝혀져야 하겠어.
- ② 조사 결과를 가져온 표본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
- ③ 조사를 실시한 목적과 조사 시간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결과의 의미가 있겠어.
- ④ 지역에 따른 사회 심리적 차이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조사자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겠어.
- ⑤ 경적을 울리는 시간의 차이가 개인 성격의 차이라면 이를 교통사고 발생으로 연결시킨 것은 오류일 수 있겠군.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